

學界回顧

李 相 敦*

I. 學界動向

1988 년도에 本學會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.

(1) 夏季세미나

① 일 시 : 1988 년 6 월 18 일 15 : 00 ~ 20 : 00

② 장 소 : 스칸디나비아 클럽

③ 주제 및 발표자

- 日本의 公害健康被害補償制度 改正論議……徐元宇(서울대 교수)
- 環境汚染에 있어서 原因者負擔의 원칙……尹瑞成(환경청 수질제
도과장)

(2) 1988 년도 總會 및 秋季세미나

① 일 시 : 1988 년 9 월 10 일 16 : 00 ~ 20 : 00

② 장 소 : 스칸디나비아 클럽

③ 定期總會

(i) 任員改選 : 新任會長에 金伊烈교수(中央大), 副會長에 吳錫洛변
호사와 具然昌교수(慶熙大)가 각각 선임되었다. 그 밖의 任員 改選은 새
로운 會長團에 위임되었는데, 新任員陣은 본 학회지에 수록된 바와 같
다. 한편 全昌祚 前會長은 본 학회의 顧問으로 추대되었다.

* 本學會 幹事

(ii) 事業 및 決算 報告

④ 세미나 主題 및 發表者

· 美國 環境法上的 市民訴訟制度……孫東源(목포대 교수)

(3) 冬季 學術세미나

① 일 시 : 1988년 12월 7일 15:00~20:00

② 장 소 : 신라호텔 매플·룸

③ 主題 및 發表者

主題 : “環境行政의 制度的 改善方向”

司會 : 金伊烈 會長

(i) “環境行政의 現況과 問題點”……盧隆熙(서울대 교수)

(ii) “環境行政의 機構와 機能”……具然昌(경희대 교수)

(iii) “크로스·미디어 汚染에 대한 立法的 對應”……李相敦(중앙대 교수)

④ 특히 동계 학술세미나는 현안정책문제를 다룬 탓으로 그 발표논문은 물론 토론내용까지도 각종 言論을 통하여 널리 보도되었는데, 당일에는 위의 발표자 이외에도 李尙圭, 徐元宇, 梁承斗, 金南辰, 申鉉德 교수 등과 環境廳의 金亨徹 기획관리관, 黃弘錫 환경정책국장, 金仁煥 전 大田支廳長, 安榮載 종합계획과장,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의 韓相旭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權肅杓 전 연세대 공해문제연구소장, 沈應基 국립환경연구원장 등 우리 나라의 環境界의 重鎮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.

(4) 「環境法研究」 제 9 권 發刊

1988년 6월 15일자로 本學會는 學會誌, 「環境法研究」 제 9 권을 특히 松岩 全昌祚 會長님의 古稀와 本學會 창립 10 주년을 기념하여 간행하였는데 이에 는 다음의 다섯편의 論文을 수록하고 있다.

· 韓國環境立法 및 行政의 再照明……具然昌

- 環境影響評價制度……金元主
- 韓國의 排出賦課金制度에 관한 考察……李善龍
- 環境政策形成에 관한 意識分析……安基熙
- 多數國家에 의하여 共有되고 있는 水資源의 保存과 管理에 관한 法理……李相教

(5) 韓國環境科學研究協議會 研究課題의 수행

本學會는 環境廳의 환경관련학문 연구비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韓國環境科學研究協議會로부터 다음의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.

- ① 政策課題：“環境行政의 制度的 基盤分析, 評價 및 改善策講究”
 - 연구책임자：盧隆熙(서울대 교수)
 - 연구기간：1988.7.1~1989.2.28
- ② 一般課題：“環境汚染被害補償制度”
 - 연구책임자：全昌祚(부산외국어대 교수)
 - 연구기간：1988.7.1~1989.3.31

II. 韓國環境科學研究協議會의 활동

1987년 1월 23일에 발족한 韓國環境科學研究協議會는 1988년도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.

(1) 제 1회 韓·日 環境科學技術 심포지움 개최

- ① 일 시：1988년 11월 22일~24일
- ② 장 소：인터콘티넨탈 호텔
- ③ 주제 및 발표자

한국의 李相培 環境廳長과 日本의 堀内俊夫 環境廳長官이 祝賀메세지를 발표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“大氣汚染管理”, “水質汚染管理”, “海洋汚染管理”, “環境政策”, 그리고 “弘報 및 環境教育”의 5개 分科에서

3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“環境政策”과 “弘報 및 環境教育” 분과에서는 다음의 논문이 발표되었다.

- “21 세기를 향한 日本의 環境政策戰略”……松下和夫
- “地方化 시대의 環境政策의 戰略”……盧隆熙
- “地域環境管理計劃”……H. Ogawa
- “韓國의 장기적인 에너지 政策과 環境問題”……辛廷植
- “廣域汚染에 대한 國際法的 接近”……李相敦
- “自然生態界 保存에 관한 經濟學的 考察”……金一中
- “自然環境保全의 現況과 戰略”……李德吉
- “環境保全과 市民參與”……具然昌
- “日本의 環境教育”……日下部甲太郎

(2) 1989 년도 總會 및 講演會

- ① 일시 : 1989 년 1 월 26 일
- ② 장소 : 국립환경연구원강당
- ③ 總會

신임회장으로 會長代行이던 車喆煥 교수(고려대 의대)를 선출하고, 부회장으로 金伊烈 교수와 李承務 교수, 그리고 盧在植 박사를 선임하였으며, 또한 環境廳을 環境部로 승격시킬 것을 촉구하는 決議文을 채택하였다.

④ 講演會

다음의 두건의 주제에 관한 강연이 행하여 졌다.

- “環境立法의 改善方向”……李相敦(中央大 법대교수)
- “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”……崔秉箕(同德女大 약대교수)

Ⅲ. 環境行政의 機能調整과 環境法の 擴充에 관한 動向

(1) 環境行政의 機能調整

환경행정 의 범위와 기능 및 환경청기구에 관한 논쟁은 어제오늘에 비

못된 것은 아니나 政府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. 이에 관하여는 특히 1988년 11월 11일에 行政改革委員會 주최로 “環境行政의 機能調整을 위한 討論會”가 개최된 바 있는데, 본 학회의 具然昌 교수와 鄭湧 교수(연세대)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. 두 교수는 모두 環境廳의 部로의 승격과 環境行政의 대상범위를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內務部 등 관련부처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의견의 개진이 있었다.

(2) 環境立法의 擴充論議

環境廳은 현재의 “環境保全法”의 단일법을 분화시켜서 그 내용을 보다 확충하는 方向을 모색하여 왔는데 1988년 9~11월에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“環境被害調査 및 紛爭調整法”(案)과 “環境政策基本法”(案)을 성안하여 각 부처와 협의에 회부하였다. 그러나, 이에 대하여는 각부처간에 이해가 상충되어서 국회에의 상정도 되지 못하고 말았으며 따라서 이는 1989년도의 課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.

IV. 기 타

本會의 創立이래 顯問으로서 本會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신 金曾漢 교수님께서 1988년 10월 7일, 향년 69세로 他界하셨다.